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이 수 현[†]

최 해 립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시험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개인의 외적 자원인 학습관여형태와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지역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생 1, 2학년 605명이었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이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정도는 높고, 시험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정도가 높고, 시험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불안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적응에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 요인인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자율성보다는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극도의 긴장 상태인 시험 상황에서 불안을 더 낮추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청소년 개인의 내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때, 청소년이 시험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학교적응

* 본 논문은 이수현의 2007년 2월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수현, 서강대학교,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산 59-2번지

Tel : 02-2660-7820, Email : lsuhyun99@hanmail.net

2005년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가 서울대 병원과 함께 서울시 초중고생 2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35.9%가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6).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고, 부모의 말에 항상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서는 탈선이나 무력감 등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이러한 어려움은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부모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조기 교육 등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렇듯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거나 부적응을 나타내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달라진 사회와 부모의 역할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정도 및 시험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이 시험불안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학습관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녀가 유아일 때 부모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나 학동

기가 되면서부터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자녀의 학업문제로 옮겨가게 된다(김종덕, 2001). 따라서 자녀의 학습 성취를 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력행동을 하기도 한다. 임은미(1998)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관련하여 자율성 증진 행동과 학업정보 제공 행동을 통합하여 ‘부모행동’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습 선택권의 부여로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는가에 관해서 가능한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적인 규칙제공으로 자녀의 학습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규칙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녀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적정성과 추구로 점수나 등수 등 자녀의 학습 성과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문제 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업행동을 검토해주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학업진보격려로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 고유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 번 보다 잘했다면 긍정적인 강화를 아끼지 않는 행동이다. 다섯째는 학업정보제공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행동의 정의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일방적이지 않고 학업 내용과 학습 형태, 학습 환경 등에서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지만

자녀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자녀가 학업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이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학습관여 형태를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선택권의 부여, 민주적인 규칙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진보격려, 학업정보제공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부모의 태도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학습관여 형태라고 명확히 구분 짓지 않고 학업에 관련된 넓은 범위의 부모의 태도나 관심 등을 중심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구(2000)는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압박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낮아진다고 하였고, 박강학(2004)은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학습동기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부모의 학습 자율성 증진행동과 학업정보제공,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학업배려 또는 학업지도 유형 등이 학업성취 또는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부모의 학업과 관련된 태도를 학업동기나 학업 성취 등 학업 면에서의 관계에만 한정짓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요즈음, 그 밖의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생활의 적응에도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지만 Garnezy 등(1983)은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 즉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 수준 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는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Kopp(1984)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자기 행동을 외부 환경에 맞춰 조절하며, 사회적 유능성을 나타내거나 어려운 과업에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Wynne 등(1982) 역시 탄력성과 긍정적으로 기능하는데 기초가 되는 개인의 자원이거나 대처 전략을 가진 아동들에게 가족 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정미현, 2003; 재인용). 이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시험불안,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학교적응의 관계 역시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으나, 부모의 지나친 학업 성취에 대한 압력이 우리나라처럼 자식의 성공이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성공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평가받는 상황 즉, 시험 상황에서 혹은 시험 전, 후에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진희, 1999).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 압력 등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많고 학습관여 형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아탄력성과 시험불안, 학교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자아탄력성

개인은 저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다루면서 인생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마다 효율적인 적응을 위하여 상황의 필요에 따라 충동을 통제하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Block & Kermen, 1996). 즉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서도 충동을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인 변인으로 작용하여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완충적인 역할은 자아탄력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표현 유형 등과 함께 설명될 수 있다. Klohen (1996)은 자아탄력성이 낙관주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및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Ciechettie와 Toth(1995)는 강한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Garnezy & Masten, A. S.(1991)는 자아탄력성의 세 가지 유형을 매우 위험한 환경 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급성 또는 만성적인 주요 생활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유능한 기능,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으로 분류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불안에 취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참하고 확실히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우울에도 취약하지 않고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의 관

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스트레스 작용을 완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자원을 활용한다(Hernandez, 1993).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기 쉽고 적응을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Tellegen, 1985).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불안과 긴장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부적응을 방지하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긴장 상황에서 완충적인 성격 특성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응능력을 증대시킴으로서 부적응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중재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탄력성과 시험불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보다는 불안이라는 총체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자아탄력성이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인 환경에서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이므로 불안감이 생겨도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자아통제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아 구조에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연약한 자아의 행위를 막고 적응적인 반응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탄력적인 자아는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게 하고 삶에서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Block & Kermen, 1996).

또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자은(2000)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인 정서성과 상황적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 있는 행동,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할 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박연수(2003)는 청소년기가 심리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어내는 시기이므로 자아탄력성이 부정적인 압력을 완화시키는 성격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보호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높은 긴장상태인 시험상황과 여러 가지 다양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학교생활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시험불안

불안은 유기체의 긴장을 수반하는 정서 상태를 일컫는 개념인데, 이러한 불안의 한 형태인 시험불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경험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수철, 1991). 학생들에게 시험불안은 시험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며 문제를 보고 있어도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험을 앞두고 심한 불안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시험지가 하얗게 보이기까지 하고 무기력해지며, 현기증, 소화불량,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Spielberger(1972)는 불안을 광범위한 상황으로부터 위협을 자각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이며 개인적 양상의 불안을 의미하는 특성불안(trait anxiety)과 특정한 환경적 상황에서 지각되는 주관적인 정서 상태로서 시간 경과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양상의 특수 불안을 의미하는

상태불안(state anxiety)으로 구분하였다. 시험불안은 이러한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조수철, 1991),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상황을 위협적인 상황으로 의식함으로써 얻어지는 불쾌한 감정인 상황불안의 요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시험불안의 생성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고 발달하게 되는데, 장휘숙(1999)에 의하면 시험불안의 직접적 원인은 학업성적이나 평가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 환경적 분위기라고 하였고, 김문주(1991)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 수준 및 발달을 가정환경, 그 중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시험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외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하며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험불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Spielberger(1972)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학습 과제를 수행할 경우 불안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더 열등한 학업성취를 보이며, 반대로 불안이 낮은 학생은 불안이 높은 학생보다 더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인다고 하여 시험불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Hill(1972)은 시험불안이 높은 수험생의 경우에는 주의력이 시험 자체보다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비판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시험불안이 과제성취에 있어서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부모의 비판과 학업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험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들 중에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김이레, 2003; 조진희, 1999)들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태도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를 볼 때, 부모의 학습참여 형태와 시험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시험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학교적응

적응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적응이란 실제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고, 둘째,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 과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면은 상호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이 두 과정이 서로 병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민영순, 1995). 이러한 적응의 과정 중에서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이 학교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이 받는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하는데, 배숙진(1999)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로 정의하였다.

역사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학생의 학업수행, 진보, 혹은 성취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학업적 결과에 대한 이런 강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많은 연

구는 인지적 기술에만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는데, 최근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보다 폭넓게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 구성개념의 정의에 학업적인 특성 뿐 아니라 다른 지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에 언급되어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생활적 적응행동, 학업적 적응행동, 스트레스 대처 정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 생활적 적응행동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백경숙, 권용신, 2004), 학업적 적응행동은 수업참여도, 학습노력, 학습행동 통제, 학습지속성과 관련된 적응행동을 뜻한다(문은식, 2001).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정도는 교내의 규칙과 질서, 각종행사, 시설물의 활용, 준비물 지참, 교내 홍보와 게시물 확인 등 교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면서, 학습자 개인에게 유발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가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용래, 1993). 이를 종합해보면,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와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양순미, 유영주, 2003).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은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한 갈등에 의해 나타나는데 부적응 학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고 부적절한 질문으로 교사의 주의를 끌

며, 다른 학생을 방해하는 등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또한 교사의 요구와 지시를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학교에 대한 적대감, 공포감, 경쟁의식이 누적되어 성적이 낮아지기도 한다(문희옥, 1987).

따라서 같은 학교 환경 내에서도 학생들의 적응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외적요인인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의 적응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의 8개 고등학교 1, 2학년 총 6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총 700부를 배부하여 634부를 회수하였고, 회수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명을 제외한 총 605명(남 263명, 여 34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척도

학습관여 형태 척도는 Deci(1995)가 제안한 네 가지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행동요인인 공부 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적절한 규칙을 민주적으로 제공하는 것, 학업과정을 문제 해결적 태도로 검토하는 것, 자녀의 학업진보를 격려하는 것과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개념을 맞추어 임

은미(1998)가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30문항으로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평가하는 자기보고서식 검사이다.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검사는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부모의 관여형태를 학습 선택권 부여형, 민주적 규칙 제공형, 적절한 성과 추구형, 학업진보 격려형, 학업정보 제공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관여의 자율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1951, 1978)에 의해 개념화되고 고안된 척도로써, 관찰자에 의해 100개의 목록을 사용한 Q-sort(CAQ)를 통해 평정되었으나, 실제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다수의 평정자를 요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최근 Klohenn(1996)이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에서 CAQ에서 자아탄력성과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뽑아 CPI의 다른 하위 척도와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9개의 항목을 추려 자기보고서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사용한 박현진(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시험불안 척도

시험불안 척도는 Spielberger(1972)가 만든 시험불안검사를 고혜영(1992)이 번안한 것을 전준식(2005)이 수정·보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시험기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험에 관계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문항들은 시험불안의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는 8개 문항과 감정적 요인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 그리고 일반적인 시험불안에 관한 4문항으로 구분하여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불안 검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적응도 검사'와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학교 적응도 척도는 김용래(2000)가 제작한 것으로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으로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의 5가지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박현선(1998)이 신뢰도, 타당도 검사를 거쳐 사용한 '학교적응유연성' 척도 중 학교 규범 준수에 관한 11문항을 포함시켰다. 채점은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하였고, 학교규범 준수에 관한 문항 중 8개의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절차

서울 소재의 8개 고등학교의 1, 2학년(18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학교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응답시간은 약 25-3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통계량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시험불안과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및 시험불안의 관계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및 시험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및 시험불안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의 합과 자아탄력성($r=.40, p<.001$), 학교적응의 합은 정적 상관($r=.34, p<.001$)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시험불안은 부적 상관($r=-.17, p<.001$)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율적일수록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높고, 시험불안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및 시험불안의 관계

자아탄력성에 따른 학교적응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시험불안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자아탄력성과 환경적응($r=.30, p<.001$), 교사적응($r=.31, p<.001$), 수업적응($r=.37, p<.001$), 친구적응($r=.35, p<.001$), 생활적응($r=.32, p<.001$), 규범준

수($r=.16, p<.001$) 차원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함은 높은 정적 상관($r=.43, p<.001$)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인지불안($r=-.45, p<.001$), 감정불안($r=-.42, p<.001$), 일반불안($r=-.42, p<.001$) 차원에서 모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자아탄력성과 시험불안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r=-.46, p<.001$)을 보이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은 낮고, 학교적응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시험불안과 유의한 관계($r=-.17,$

표 2.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및 시험불안 간의 상관계수 (r)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환경적응	.30***
	교사적응	.31***
	수업적응	.37***
	친구적응	.35***
	생활적응	.32***
	규범준수	.16***
	합	.43***
시험불안	인지	-.45***
	감정	-.42***
	일반	-.42***
	합	-.46***

*** $p<.001$

표 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및 시험불안 간의 상관계수 (r)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규칙 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 제공	학습관여 합	
자아탄력성	.33***	.33***	.34***	.26***	.27***	.40***	
학교 적응	환경적응	.18***	.19***	.23***	.13***	.12***	.22***
	교사적응	.20***	.22***	.28***	.12***	.26***	.29***
	수업적응	.25***	.26***	.29***	.11***	.21***	.29***
	친구적응	.20***	.19***	.23***	.15***	.19***	.26***
	생활적응	.22***	.18***	.23***	.13***	.19***	.26***
	규범준수	.17***	.12***	.05	.12***	.01	.11***
합	.29***	.28***	.31***	.18***	.23***	.34***	
시험 불안	인지	-.24***	-.25***	-.09*	-.29***	.01	-.19***
	감정	-.15***	-.17***	-.06	-.22***	.01	-.13***
	일반	-.17***	-.16***	-.06	-.21***	.01	-.13***
	합	-.21***	-.22***	-.08	-.26***	.01	-.17***

* $p<.05$, *** $p<.001$

표 3. 시험불안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R	R ²	t	F	β
시험불안	1	학습관여	.17	.03	-4.10	16.81***	-.17
	2	학습관여 자아탄력	.47	.22	.61 -12.05	83.02***	.02 -.47

*** $p < .001$

$p < .001$)가 있고, 자아탄력성도 시험불안과 유의한 관계($r = -.46, p < .001$)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독립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시험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시험불안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의 효과 크기로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며($\beta = -.17, p < .001$), 그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포함시킨 2단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영향은 줄어들고($\beta = .02, p < .001$), 전체 설명력은 22% 증가하여 자아탄력성의 설명력이 19%로 나타났다. 즉, 시험불안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영향력에 비해 시험불안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학교적응과 유의한 관계($r = .34, p < .001$)가 있으며, 자아탄력성도 학교적응과 유의한 관계($r = .43, p < .001$)를 가진다.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독립변인으로, 2단계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의 효과 크기로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beta = .32, p < .001$), 그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을 포함시킨 2단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영향은 줄어들고($\beta = .20, p < .001$), 전체 설명력은 22% 증가하였으므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은 10%정도로 나타났다.

표 4.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R	R ²	t	F	β
학교적응	1	학습관여	.32	.12	8.39	70.44***	.32
	2	학습관여 자아탄력	.47	.22	8.86 9.21	84.86***	.20 .35

*** $p < .001$

즉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아탄력성보다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605명을 대상으로 외적 요인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따라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정도 및 시험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에 따른 학교적응도와 시험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외적 요인인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시험불안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및 시험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도는 높고, 시험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경우, 하위변인별 상관이 높고, 부의 학습관여 형태와 모의 학습관여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부와 모를 합한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양육태도의 한 형태라고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해심이 크고 지지적일수록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하명선,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신윤자, 200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시험불안

에서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가 클수록 자녀의 시험불안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최미라, 2004; 조진희, 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하위요인별로 학교적응과의 상관을 보면 걱정성과 추구($r=.31, p<.001$), 학습선택권 부여($r=.29, p<.001$), 민주규칙 제공($r=.28, p<.001$), 학업정보 제공($r=.23, p<.001$), 학업진보 격려($r=.18, p<.001$) 순으로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하위요인별로 시험불안과의 상관을 보면 학업진보 격려 ($r=-.26, p<.001$), 민주규칙 제공($r=-.22, p<.001$), 학습선택권 부여($r=-.21, p<.001$), 걱정성과 추구($r=-.08, p<.001$) 순으로 큰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걱정성과 추구($r=-.08$)는 부적 상관이나 유의미하지 않았고, 학업정보 제공($r=.01$)은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여할 때 단순히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낮아진 성적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부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 고유의 맥락에서 이해하며, 언제,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그 하위 변인으로 학습 선택권 부여, 민주규칙 제공, 걱정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 학업정보제공 등으로 제한하였으므로 그 외의 다양한 변인들에 의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 개입이 큰 시점에서 단순히 자율성의 정도만을 측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관여의 유형을 관여 정도와 관여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여 그 상관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살펴보았지만 최근 조기교육으로 학습관여의 시기가 영아기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불안과 적응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자아탄력성에 따른 학교적응과 시험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는 높고 시험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적일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선행연구(박연수, 2003; 구자은, 200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이 불안에 취약하지 않고 외적인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연구(고은정, 1997)의 결과와도 상관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좌절적인 환경에서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시험상황이나 학업과 입시에 대한 압박이 큰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압력들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시험불안이 생겨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으며, 융통성있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교생활의 적응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이 시험불안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보다 시험불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와 자아탄력성이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적 요인인 지각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의 자율성보다는 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시험불안을 더 낮추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이 입시와 시험의 긴장감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치열한 경쟁이 있는 학교생활에서 적응도를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학교적응보다는 시험불안에서 더 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시험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불안과 학교적응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시험불안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규범준수($r=-.11, p<.001$), 환경적응($r=-.10, p<.05$), 수업적응($r=-.09, p<.05$)의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교사적응, 친구적응, 생활적응의 차원에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불안이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전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안이 높을수록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불안과 같은 약간의 상황불안은 적당한 긴장감을 고조시켜 오히려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희정, 1998; 홍정기, 1995)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시험불안을 측정하는 시기에 있어서 본 연구는 중간고사 이전에 실시하였는데 8개의 학교의 시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

들이 느끼는 시험불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통제가 이루어져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 시험 직전, 시험 후로 달리 해서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생의 시기는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많은 긴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다른 시기보다 적응이 더욱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적 과업을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입시와 취업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 긴장감과 적응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속설이 말하듯이 자녀의 교육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부모들의 모습이다 보니 부모 역시도 그 긴장감과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등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적응을 미연에 예방하고 좀 더 바람직하고 능동적인 고등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태도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부모는 학업에 있어서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중립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부모가 지지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로 학습에 관여할 때 고등학생은 자율적이라고 지각하며 이에 따라 개인의 내적인 완충제인 자아탄력성이 높아져서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닦쳐오는 긴장과 불안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내적인 자아가 탄력적이 될 때 고등학생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입시와 경쟁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나친 개입과 간섭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자율성이 배제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로 하여금 불안감을 높일 수 있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개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선택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학습관여 형태를 유지하고 개인의 내적 에너지인 자아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며 건강한 고등학교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고등학생 뿐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영아에게까지 불어 닦친 조기교육의 열풍이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보는 일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외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각 요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를 자율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가정과 학교,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한 과도기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정 (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고혜영 (1992). 교사기대지각·학문자아개념·시험불안과 학업성취간의 분석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 김문주, 이혜성 (199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정신의학, 2(1).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김용래 (2000).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김이혜 (2003).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 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 김희정 (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불안과 학교 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 문희옥 (1987). 정서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민영순 (1995). 가정환경 및 학급사회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강학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습관여 형태가 중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박연수 (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호.
- 박현진 (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 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백경숙, 권용신 (2004).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양순미, 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이재구 (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

- 취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장휘숙 (1999).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전준식 (2005). 뇌호흡 수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국제평화대학원.
- 정미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조수철 (1991). 시험불안의 개념과 이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3-10.
- 조진희 (1999).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미라 (2004). 고등학생의 시험불안과 자아존중감 및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하명선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하임숙 (2006). 서울지역 초중고생 3명중 1명 정신건강에 문제. 동아일보, 8. 21, 12.
- 홍정기 (1995). 국민학생의 상황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lock, J. H. (1978).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icchetti, Toth and Lynch. (1995). Bowlby's dream comes full circles, *Advances in Clinical Psychology*, 17, 1-75.
- Deci, E. I., (1995).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 Dixon, S. J. (2002). *Attitudes that reflect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oping responses and protective factor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Garmezy, N. (1983). Stressors in childhood. In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43-84). NY: McGraw-Hill.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ill, K. T. (1972). Anxiety in evaluative context in the Young Child edited by Hartup W.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opp. C. B. (1984).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54.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1).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pp.681-706). Hillsdale, NJ: Erlbaum.

Wynne, L. C., Jones, J. E., & Al-Khayyal, M. (1982). Healty family communications patterns: Observation in families “at risk” for psychopathology,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 (pp.142-167). NY: Guil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7. 3. 23

수정원고접수일 : 2007. 4. 20

게 재 결 정 일 : 2007. 4. 30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Their Ego-resiliency, Test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Su Hyun Lee

Haerim Choi

Sog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high school students' ego-resiliency, test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5 10th and 11th high school students (263 boys and 342 girls) in Seou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ore autonomous the students perceived that is, their parents allow them autonomy in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the higher their ego-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were while the lower the test anxiety was. Ego-resiliency correlated positively with school adjustment and negatively with test anxiety. And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y on test anxiety was higher than that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was similar to that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go-resiliency, test anxiety, school adjustment,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